

# 상품 슈퍼 사이클(Supercycle) 관한 쟁점

임송수(고려대학교)<sup>1)</sup>

## 1. 서론

미국 월가(Wall Street)를 대표하는 은행인 제이피 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원유 등 상품(commodity)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슈퍼 사이클(supercycle)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Financial Times, 2021). 특히,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sup>2)</sup>

이와 같은 가격 급등 전망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재정 부양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새로운 생산에 대한 투자 저조로 생산 능력에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나 단절이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슈퍼 사이클의 기본 조건인 셈이다.

상품 슈퍼 사이클에 회의적인 관점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기대와 달리 소비가 팬데믹(pandemic)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원유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UAE가 공급 역량을 확충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OPEC+ 회원국(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모임) 및 이란 등이 충분한 공급 역량을 지녀 단기에 공급 부족 현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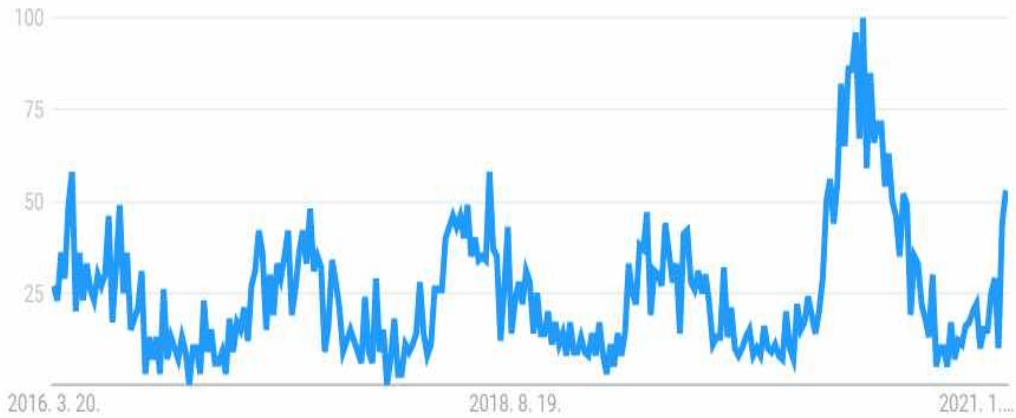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Supercycle” 이란 용어를 구글(google)에서 검색한 건수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급증하였고, 2021년에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낸다<그림 1 참조>.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혹은 조만간 시작될 것인지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상품 가격의 흐름과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이에 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

1) songsoo@korea.ac.kr

2) 2021년 3월 11일 기준으로 브렌트 원유(Brent Crude) 가격은 배럴당 \$68을 나타냄(oilprice.com). 이는 2020년 4월 22일에 \$20을 기록한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그림 1> “Supercycle” 용어의 구글 검색 빈도



자료: Trends.google.com (검색일: 2021년 3월 20일)

이 글에서는 국제 곡물을 포함한 상품 슈퍼 사이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관점에서 대응할 방향을 제시한다.

## 2. 슈퍼 사이클의 개념과 특성

슈퍼 사이클은 상품 가격이 장기 추세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기간이 오래가는 현상을 말한다. 사이클 기간은 가격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십 년일 수 있다. 상품 슈퍼 사이클을 더 잘 식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Christiano and Fitzgerald(2003)의 방법론을 활용한 캐나다 은행의 연구(Büyüksahin et al., 2016)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슈퍼 사이클에 관해 이해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는 20년에서 70년간에 상품 가격의 일정한 변동을 밝히기 위해 비대칭 대역 통과 필터(asymmetric band pass filter)를 사용하여 가격의 주기적인 변동을 도출하였다.<sup>3)</sup>

대역 통과(BP) 필터를 사용하면 다양한 주기 현상이나 빈도의 주기적 요소의 결합으로 경제 관련 시계열 자료를 나타낼 수 있다. Cuddington and

3) Christiano and Fitzgerald(2003)의 방법론은 비대칭 이동평균을 활용한 필터로, 빈도 정의역(frequency domain)에서 미리 정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 부분만 추출하는 대역통과(band pass) 방식임(변양규, 2016). 모든 관측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장기에 수렴하는 비대칭 필터임.

Jerrett(2008)에 따라 BP 필터를 사용하면 실질 상품 가격 지수(series)의 자연 로그(natural logarithm; P)를 장기 추세(T) 요소와 슈퍼 사이클(S) 요소 및 기타 단기(O)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식 1 참조>.

$$P = T + S + O \quad (1)$$

여기서 슈퍼 사이클에 해당하는 사이클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가격 상승기가 보통 10년부터 35년까지 이르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 배인 20~70년을 하나의 완전한 슈퍼 사이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각 가격 시계열 자료에 BP(20, 70)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슈퍼 사이클 요소를 도출하게 된다<식 2 참조>.

$$S = BP(20, 70) \quad (2)$$

이처럼 정의한 슈퍼 사이클 아래 장기 추세는 자연적으로 70년을 초과하는 시기의 모든 주기적 요소로 간주한다<식 3 참조>.

$$T = BP(70, \infty) \quad (3)$$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기 추세가 자료의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화할 수 있다. 장기 추세와 슈퍼 사이클을 확인한 후에 그 나머지는 단기의 주기적 요소인데, 2년에서 20년까지 주기를 지닌다<식 4 참조>.

$$O = BP(2, 20) \quad (4)$$

그래프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추세 요소(non-trend; NT)는 장기 추세로부터 총 편차로 규정한다<식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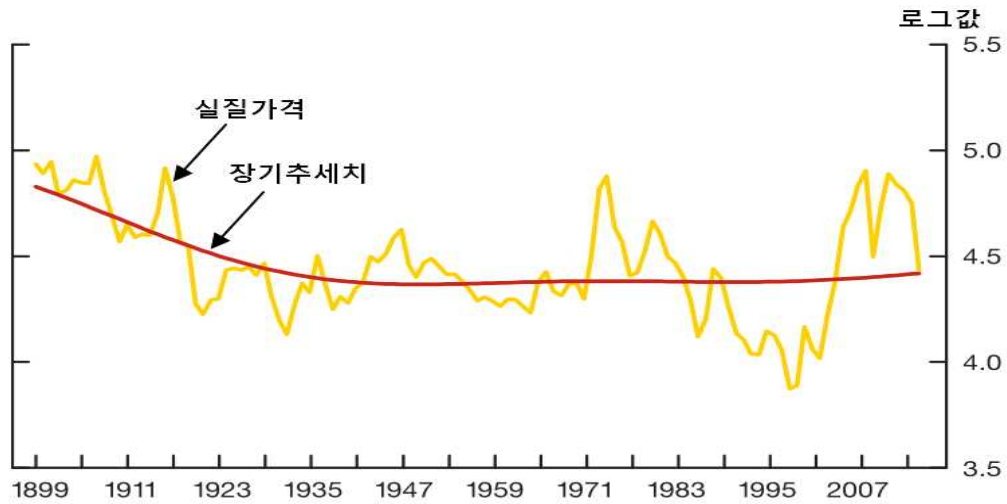
$$NT = S + O \quad (5)$$

이를 BP 필터로 표현하면 <식 6>과 같다.

$$BP(2, 70) = BP(2, 20) + BP(20, 70) \quad (6)$$

<그림 2>은 실질 캐나다 은행의 상품가격지수(Bank of Canada commodity price index: BCPI)의 로그값(log level)과 BP 필터를 통해 추출한 장기 추세를 1899년부터 2015년까지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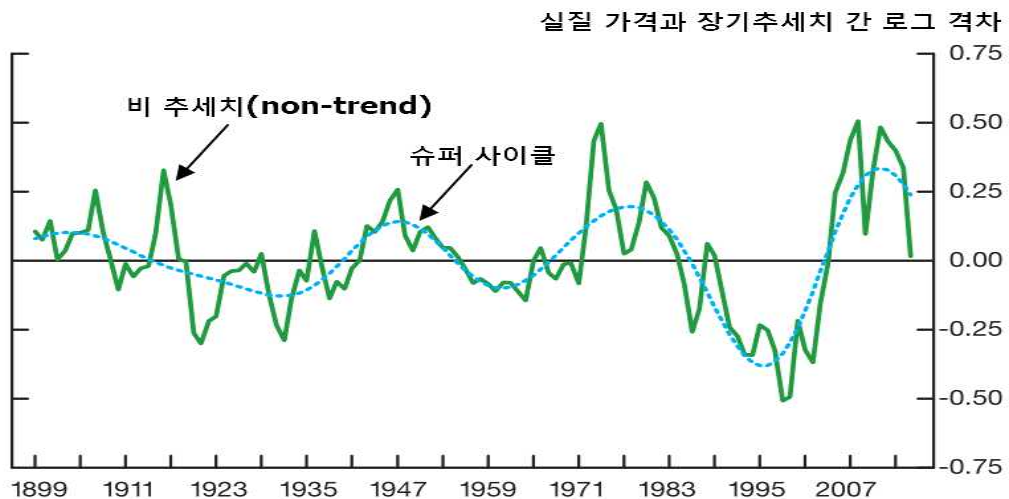
<그림 2> 캐나다 은행의 실질 상품가격지수(BCPI) 로그값과 장기 추세



자료: Büyüksahin et al.(2016)

<그림 3>은 실질 BCPI와 장기 추세 간 로그 격차(log difference)를 나타낸다. 이처럼 추세를 제거한 데에서 다시 단기 진동(oscillation)을 제거하면 실질 BCPI의 슈퍼 사이클만 남게 된다. 그 결과 슈퍼 사이클의 최고치가 장기 추세로부터 40%까지 변동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실질 BCPI의 로그 격차



자료: Büyüksahin et al.(2016)

비대칭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한 연구들은 1899년 이래 총 4번의 상품 슈퍼 사이클이 있었다고 제시한다. BCPI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표 1>은 4번의 슈퍼 사이클의 기본통계이다.

<표 1> 상품 가격의 슈퍼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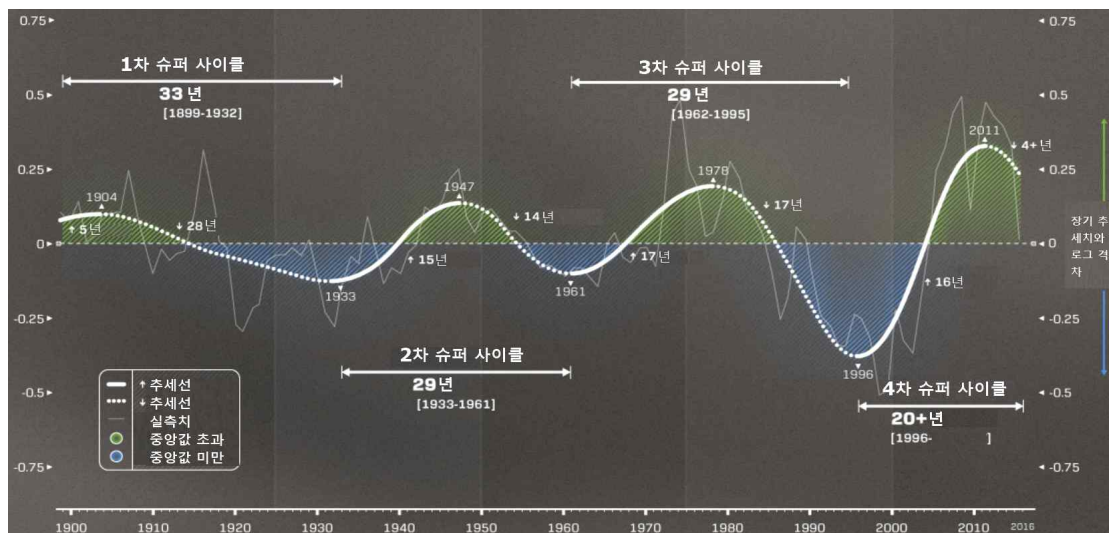
분류		1899-1932	1933-61	1962-95	1996-
최고점 연도		1904	1947	1978	2011
장기 추세 대비 슈퍼 사이클의 위치	최고	10.2%	14.1%	19.5%	33.5%
	최저	-12.9%	-10.0%	-38.1%	23.7%
상승 기간		5년	15년	17년	16년
하락 기간		28년	14년	17년	진행중

주: 자료 기간인 2015년까지 반영한 결과임. 최근 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4번째 슈퍼 사이클 기간은 1996~2020년으로 볼 수 있음.

자료: Büyüksahin et al.(2016)

슈퍼 사이클의 최저점부터 다음 최저점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32년이다. 물론 모든 사이클이 같지 않으며 사이클마다 상승과 하락 국면의 기간도 다르다. 예를 들면, 사이클이 최고점에 이르는 기간은 5년에서 17년까지이고, 최고점에서 최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14년부터 28년까지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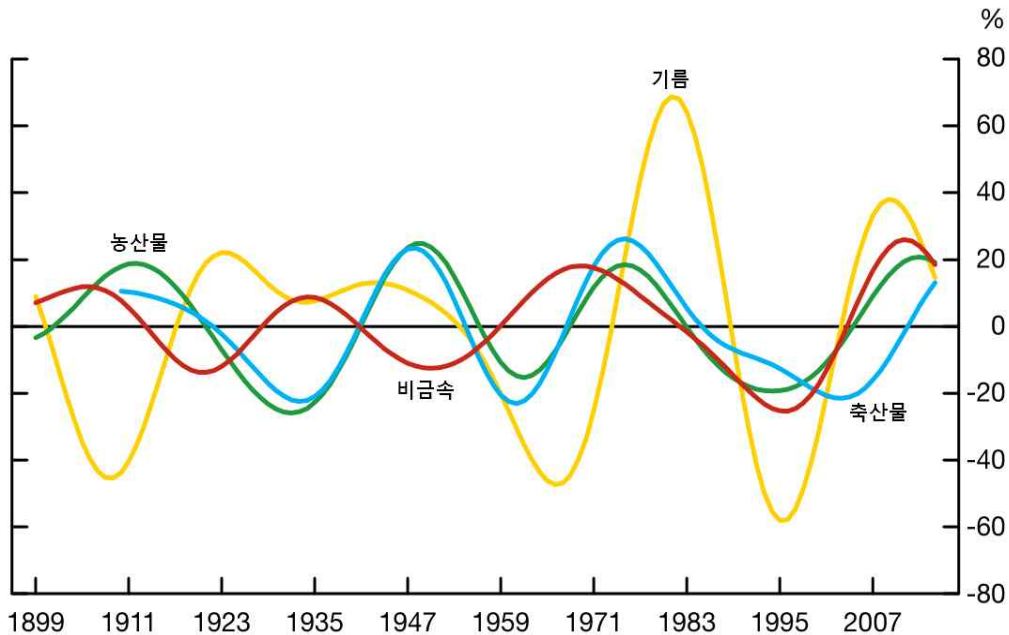
<그림 4> 슈퍼 사이클의 패턴



자료: LePan(2019)

<그림 5>은 BCPI를 구성하는 비금속(base metal), 농산물, 축산물, 유류의 슈퍼 사이클을 나타낸다. BCPI와 마찬가지로 비금속과 농산물 및 축산물의 슈퍼 사이클은 크게 4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이며, 유류의 경우 3번의 사이클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 사이클과 달리 1996년부터 시작한 주요 상품의 슈퍼 사이클은 모두 같은 시기에 상승 기조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5> 주요 상품별 슈퍼 사이클



자료: Büyükşahin et al.(2016)

### 3. 슈퍼 사이클을 둘러싼 쟁점

#### 3.1. 찬성 측 주장

상품 슈퍼 사이클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높은 물가상승률(inflation) 전망이다. 2021년 3월 18일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1.75%까지 상승하였다<그림 6 참조>. 이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낮은 수준인 0~0.25%로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2% 초반을 나타낼 것

이란 전망을 제시하였다(Fed, 2021).

역사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상품 가격은 일관된 동반 움직임을 나타내왔다. 미국 Fed처럼 코로나-19 환경에서 세계의 많은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인정할 것이라 보면 상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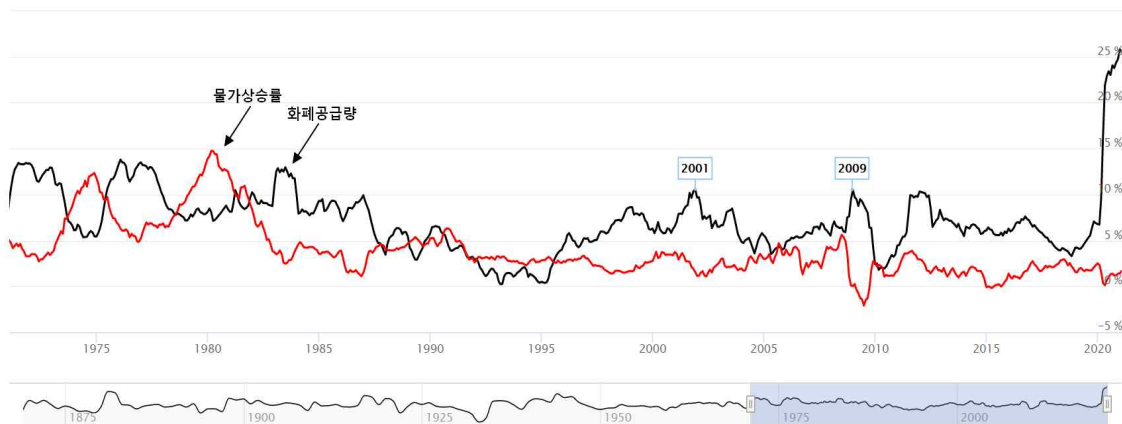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Fred.stlouisfed.org (검색일: 2021년 3월 17일)

물가상승률의 주된 압박요인으로 화폐공급(M2) 증가율을 들 수 있는데, 이미 1970년대 수준을 초과한 상태이다<그림 7 참조>. 2008-9년 금융위기 이래 통화유통속도(money velocity)는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급락하였다. 통화유통속도가 낮은데도 물가상승률에 관한 기대와 상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특이하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면 물가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7>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화폐공급량(M2) 증가율 추이



자료: Longtermtrends.net (검색일: 2021년 3월 17일)

상품 가격 급등이 적절한지는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과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게 유용하다. <그림 8>은 1971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골드만삭스 상품지수(Goldman Sachs Commodity Index)와 S&P500 지수 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500 지수: 1971년 1월~2021년 1월



자료: Incrementum AG(incrementum.li) (검색일: 2021년 3월 17일)

지난 50년간 상품과 S&P500 지수의 비율은 평균 3.9를 기록하였다. 2021년 1월의 비율은 0.5 정도로 낮아 주식 가격에 견주어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저평가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상품 가격이 주식 대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거의 700% 정도 상승하여야 한다. 2020년부터 가격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식 가치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의 상품 가격 회복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간 구조적인 상승장의 시작으로 평가하였다(Goldman Sachs, 2020).

① 전통 경제의 보복

- 낮은 수익률로 10년 이상 지속하였던 구조적 저투자가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2020년에 가속함.
- 코로나 백신이 주도하는 수요 회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능력이 부족함.

- 투자 결정이 역사적으로 바닥권에 놓여 있음.

### ② 사회적 수요가 이끄는 REV 수요

- 코로나 사태는 금융 안정 대신에 사회적 수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
- 새로운 정책 기조는 사이클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상품 집약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할 것임.
- 재분배(Redistributional) 정책, 환경(Environmental) 정책, 다각화한(Versatile) 공급망 계획 등 세계적인 REV 계획이 상품의 국제적 수요를 증진할 것임.
-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5YP),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정책이 중점을 두었던 금융 안정에서 벗어나 REV 수요에 더욱 집중할 것임.<sup>4)5)6)7)</sup>

### ③ 재평가(revaluation)와 재팽창(reflation)

-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 지출의 급증은 달러화의 역풍으로 나타남.
- 정부 지원은 2021년 이후 서서히 사라지면서 유류와 금값이 역사적인 정점에 이르렀던 1970년대와 2000년대와 비슷하게 양(+)의 피드백 회로(loop)로 나타날 것임.
- REV 정책의 영향으로 1970년대 이래 경험하지 못한 높은 물가상승률에 직면할 위험이 있음.

대규모 정부 지출, 코로나-19 대응 유동성 공급, 낮은 이자율, 중앙은행의

---

4) 중국은 2021년 3월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5년)을 통해 ① 빠른 속도 중심에서 높은 품질 중심의 경제개발로 전환, ② 이중 순환정책(dual circulation policy: 국내와 국제시장의 상호 강화)을 추구하되, 국내수요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패턴 추구, ③ 혁신과 기술적 독립, ④ 경영과 시장 개혁, ⑤ 제조업의 발달, ⑥ 도시화, ⑦ 건강 돌봄, ⑧ 환경과 기후변화 등을 제시함(Dezan Shira & Associates, 2020). 특히, 5YP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이 목표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으로서 중국이 2030년 전까지 배출량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축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임.

5) 유럽의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큼 이를 상쇄하는 활동(예: 나무심기, 재생에너지 활용, 배출권거래와 같은 경제수단 채택 등)을 통해 순 배출량을 “0” 로 만드는 것) 목표를 담고 있음(이혜경, 2020).

6)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에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함(The Guardian, 2021).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미국이 지출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총 6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지출한 자금보다 큰 규모임.

7) 주요국이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규모는 앞으로 20년간 40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음(이러한 전망은 상품 슈퍼 사이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목되기도 함).

채권 매입, 친환경 에너지(green energy)로 전환, 하부구조 건설, 전면적인 재난지원금, 화폐 공급량 증대, 달러화의 약세 등이 종합적으로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2020년에 상품 가격은 이전보다 높은 이득을 창출하였다<그림 9 참조>.

<그림 9> 상품별 연도별 가격 수익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06%	19.19%	26.23%	11.35%	-2.50%	103.67%	66.25%	18.59%	54.21%	47.89%	은
8.15%	15.19%	7.19%	6.91%	-8.63%	60.59%	32.39%	17.86%	34.46%	26.02%	구리
5.76%	12.16%	1.70%	3.91%	-10.42%	59.35%	31.19%	8.91%	31.55%	25.86%	팔라듐
2.78%	12.11%	0.17%	3.80%	-10.72%	45.03%	30.49%	-0.44%	21.48%	25.12%	금
-9.94%	9.87%	-1.00%	-1.72%	-11.75%	20.96%	30.49%	-1.58%	18.31%	24.82%	옥수수
-17.82%	8.98%	-5.44%	-2.24%	-17.79%	17.37%	27.51%	-8.53%	15.21%	19.73%	아연
-18.27%	8.00%	-6.72%	-8.62%	-19.11%	14.86%	24.27%	-14.49%	11.03%	18.66%	니켈
-18.95%	7.52%	-11.03%	-11.79%	-20.31%	13.58%	13.09%	-16.54%	3.40%	15.99%	가스
-20.86%	7.14%	-14.02%	-14.00%	-26.07%	13.49%	12.47%	-17.43%	3.36%	14.63%	밀
-21.35%	4.18%	-18.63%	-15.51%	-26.10%	11.27%	6.42%	-17.46%	-4.38%	10.92%	플라티늄
-21.55%	2.33%	-22.20%	-16.00%	-26.50%	8.56%	4.66%	-19.23%	-4.66%	10.80%	알루미늄
-24.22%	-7.09%	-28.04%	-19.34%	-29.43%	1.16%	2.99%	-22.16%	-9.49%	3.25%	납
-25.24%	-9.22%	-35.84%	-31.21%	-30.47%	-1.88%	-0.38%	-24.54%	-18.02%	-1.29%	석탄
-32.15%	-16.78%	-39.58%	-45.58%	-41.75%	-13.19%	-20.70%	-24.84%	-25.54%	-20.54%	유류

자료: Holmes(2021)

2020년에 옥수수는 25% 상승하였고, 밀은 15% 증가하였다. 총 14개 품목 중에 석탄(-1.3%)과 유류(-20.5%)를 제외한 12개 품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의 수익률은 2019년에는 9개 품목, 2018년에 3개 품목과 견주어 구조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 3.2. 반대 측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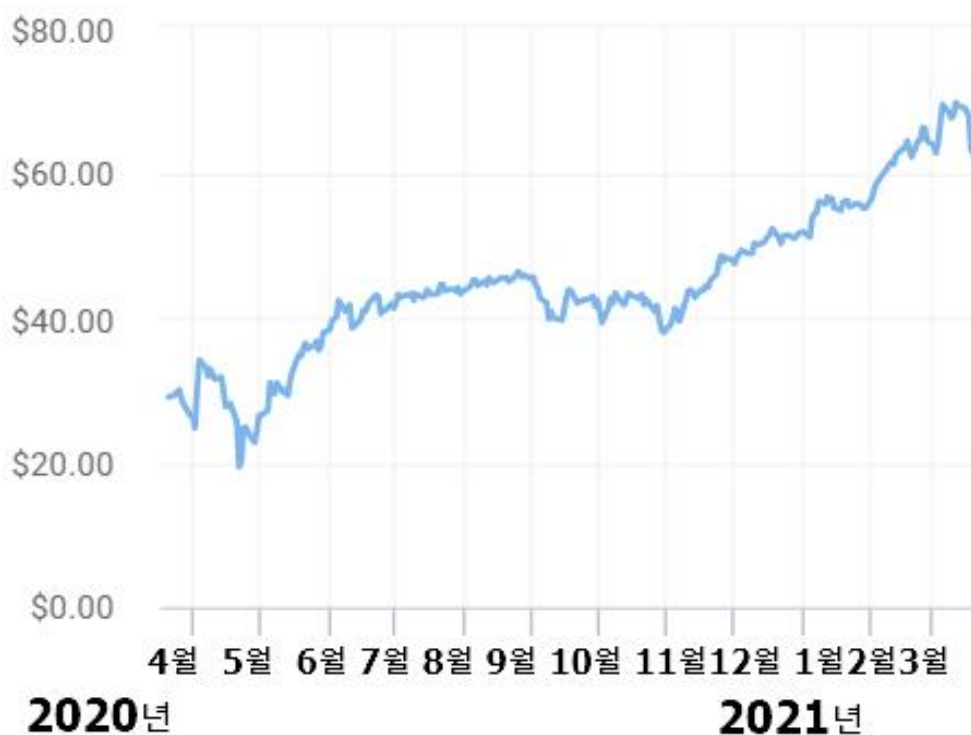
2020년 11월 이래 유가(Brent crude)는 70% 상승하여 2021년 3월 초에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였다<그림 9 참조>. 경제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였다

고 주장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와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에 의한 경기회복과 주요 수출국의 생산 감축 및 투자 지연으로 유가 강세가 중장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유가 등 상품 가격의 강세는 단기적일 것이란 주장도 있다 (Campanella, 2021). 그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팬데믹에 의한 기업폐쇄 등의 피해와 생산 부족을 메꾸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급격한 수요 증대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유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양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요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다.

〈그림 9〉 브렌트 원유 가격 추이



자료: Oilprice.com (검색일: 2021년 3월 18일)

둘째, 공공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부구조 투자 계획(약 2조 달러)이나 EU의 그린딜 추진이 코로나 대응에 의한 부채부담으로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가 간 격차

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제활동과 사회적 삶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유류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가의 경우 백신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들의 경기회복과 수급 개선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가 비즈니스나 삶의 방식에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온라인 소통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하고 세계 상품 공급망이 단축되어 이전과 같은 산업활동과 수요가 자동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예를 들면, 유류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다섯째, 유류의 공급 측면에서 OPEC+의 감산이나 동결이 해제되면 경기회복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 가격압박이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세계의 유류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이었으나, 2020년에 9,000만 배럴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생산량은 낮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200만 배럴이 감소하였고, OPEC+의 감산으로 약 800만 배럴의 공급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단기에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수요 증대로 유가가 오를 것이나 이전의 슈퍼 사이클과 같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 4. 시사점과 결론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 92%, 밀 0.7%, 콩 26.7%, 옥수수 3.5%이다.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금의 식량 조달체제는 국제 가격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곡물을 비롯한 주요 상품의 슈퍼 사이클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은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2020년 중반 이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2분기까지 선물가격지수가 2015년(=100) 대비 138.4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그림 10 참조>. 또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기상이 악화하고 중국의 곡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 아래 3월 조기경보지수를 “경계” 단계로 상향 제시하였다<그림 11 참조>.<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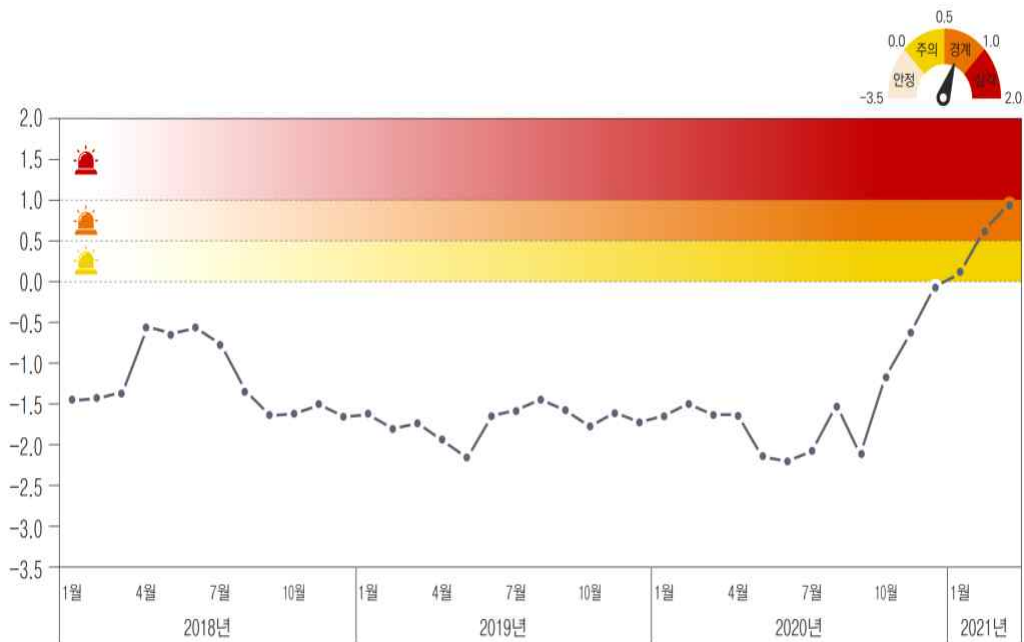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부의 총괄조정 아래 세계시장 곡물 수급을 관측하여, ① 안정(0.0 이하), ② 주의(0.0~0.5), ③ 경계(0.5~1.0), ④ 심각(1.0 이상) 등 4단계로 조기경보지수를 발표함.

<그림 10> 밀, 옥수수, 콩 선물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그림 11> 2021년 3월 조기경보 단계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곡물 슈퍼 사이클에 대비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자급역량을 높여야 한다. 연간 16,000ha 이상의 농지가 전

용되는 상황에서 자급 생산기반 확충은 난망하다. 우량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간척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영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과 산업육성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중장기 해외 곡물 조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조가 필요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하여 2020년에 사료용 밀을 국내에 공급한 사례와 팬오션이 미국 북서부의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을 확보하여 사료용 옥수수를 국내에 공급한다는 계획 등은 고무적이다. 민간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운송과 물류 등 하부구조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신축적인 국내 및 수입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sup>9)</sup> 장기 도입 계약 등을 활용해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도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격 상승에 취약한 기업이나 농가에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 곡물 수급의 변화를 관측하고 전망 및 분석하여 산·관·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와 “국제 곡물 자문위원회”의 운영, 학계와 다른 민간부문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9)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임. 2021년에 할당관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품목을 지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농수산물은 2020년과 같은 21개 품목임(기획재정부, 2020).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0.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2020년 12월 28일 보도자료.
- 변양규. 2016.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KERI Insight 16-28.
- 이혜경. 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 Bahattin Büyüksahin, B. Mo, K. and Zmitrowicz, K. 2016. Commodity Price Suercycles: What Are They and What Lies Ahead? Bank of Canada Review, Autumn 2016: 35-46.
- Campanella, E. 2021. Is Gas About to Get Much More Expensive? Foreign Policy, March 15, 2021.
- Christiano, L. and Fitzgerald, T. 2003. “The Band Pass Filte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4(2): 435-465.
- Cuddington, J. and Jerrett, D. 2008. Super Cycles in Real Metals Prices? IMF Staff Papers Vol.55, No.4.
- Dezan Shira & Associates. 2020. What to Expect in China’ s 14<sup>th</sup> Five Year Plan? Decoding the Fifth Plenum Communique. China Briefing, November 12, 2020.
- Fed. 2021.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arch 16-17, 2021.
- Financial Times. 2021. Oil ‘Supercycle’ Predictions Divide Veteran Traders. February 16, 2021.
- Goldman Sachs. 2020. 2021 Commodity Outlook: RE Ving up a Structural Bull Market. November 18, 2020.
- Holmes, F. 2021. Will Commodities Ride the “Blue Wave” Higher in 2021? US Global Investors, Investor Alert, January 8, 2021.
- LePan, N. 2019. What Is a Commodity Super Cycle? Visual Capitalist, August 2, 2019.
- The Guardian. 2021. The Guardian View on the Biden Stimulus: A Historic Moment. Editorial, March 14, 2021.